

第 50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 會 議 會 議 錄

( '95. 5. 22 ~ 5. 24. )

忠清北道教育委員會

中國社會科學院  
社會學研究所  
社會學系  
社會學系

會員證

# 목 차

1995 • 5 • 통권 제42호

I.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3
II.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7
III.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23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	61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5월 22일 (월요일) 14시 59분

## 議事日程 (제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사회: 의사과장 강인형)

(14시 59분 개식)

###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5시 00분 개의)

### ● 의장 김영세

[제50회-제1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1. 경과보고

(15시 00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3일 박병해위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고 제95-5호로, 같은 날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 전화기 의결안건 처리입니다.

전화기 의결하신 제97학년도 국민학교설립계획안을 4월 2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금회 처리하실 사항은 이상일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고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산회후에는 청주혜화학교를 방문하시고 제2차 본회의 산회후에는 청주혜원학교를 방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권혁풍위원께서는 대학 출강으로 금일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5시 02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 간으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의 질문은 전화기 질문에 대한 답변중, 서면으로 받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과 그간의 교육현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의의가 없으므로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시 03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상일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발언대로 나눔)

● **위원 이상일**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본인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때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11시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그리고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타 관계관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일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4.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5시 06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홍신희, 장충호,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모두 “좋습니다.” 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홍신희, 장충호,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회후에는 청원군 구암분교장 자리에 교사를 새로 신축하여 금년 3월에 이전, 개교한 청주혜화학교를 방문하겠사오니 위원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제50회-제1차]

○ 출석위원 : 10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김근학,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최명선.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5월 23일 (화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附議된 案件

### 1. 경과보고

###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1시 00분 개의)

####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1. 경과보고

(11시 00분)

####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5월 2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

다.

금일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후에 청주혜원학교를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1시 02분)

####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발언시간 20분 범위 내에서 전화기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과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되, 의석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일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이상일

이상일교육위원입니다.

교육행정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교육원의 이전과 구 교동국민학교 재산의 처리문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제34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이전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이전계획안을 보면, 청주시 수동 180번지, 당시 교동국민학교로 금년 3월 1일자에 과학교육원을 이전하고 기존의 과학교육원 건물은 과학고등학교에 학급을 증설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뒤따르는 업무추진 사항으로서 교육부에 이전 계획의 승인신청과 학교시설 결정의 해제 등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동 계획안은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둘째로 구 교동국민학교의 건물등 시설물이 별다른 관리없이 도심에

방치되어 청소년들의 탈선장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주민, 이웃주민의 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난번에는 할인매장으로 임대하여 뜻있는 교육인사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구 교동국민학교 건물에 현재 관리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충북공고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처리문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공고 부지 내에는 대형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이것이 파손될 때에는 큰 재산이 파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위험이 상존하는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것을 부지매입 당시에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학교부지를 매입하였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이 문제의 상수도관을 이설될 계획은 없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정도로 추산됩니까?

또한 이 설비가 설계시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흥학원과 청석학원 사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자 충청일보 보도에 의하면  
 신흥학원의 이사장 부인이 법인 소유의 토지  
 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장학금으로 사용  
 할 돈, 2억 7천 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  
 속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  
 니다.

이러한 법인재산의 횡령 사고에 대하여 감  
 독 관청인 교육감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적의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진상 및 조사 결과  
 는 어떠하며, 청석학원의 경우 직접적인 감  
 독 권한은 교육부에 있지만 이사 개편에 관  
 련한 일련의 사태에 관하여 교육감이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줄로 아는데  
 이러한 사태에 자세한 상황과 대응책은 무엇  
 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일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예, 다음은 의석 순서대로 이재희위원 차  
 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부의장  
 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세의장 이상일부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적무대행 이상일

다음은 이재희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발언대로 나눔)

● 위원 이재희

이재희 교육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7이면 이제 전국적으로 학교급  
 식이 전부 실시되도록 되었는데 요즘 각급  
 학교에서 급식소를 보며는, 총 주식인 쌀을  
 거의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구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  
 격차이로 인해가지고 대부분이 '93년도, '94  
 년도 재고 쌀을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은 한참 발육상태에  
 있고 가장 영양상태를 집중적으로 지도해야  
 될 이러한 어린 학생들에게 하필이면 우리  
 나라 재고 쌀 소비를 위해서 학교급식을 실  
 시하는 양 이렇게 오해도 되고 있는데 과연  
 학교급식에는 꼭 농협의 재고 쌀을 사용하도  
 록 정부에서 어떤 지시가 온 게 있는지, 아  
 니면 부디 이런 재고 쌀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쌀도  
 지금 오래된 통일벼 쌀은 공업용이나 사료용  
 으로 쓰고 있는데 '93년도 통일벼를 급식을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에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마  
 는 급식학교에서 사용하는 쌀 소비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 자료  
 에 통일벼쌀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몇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요즘 농촌의 그 폐교가 통폐합이  
 늘면서 학교 스쿨버스가 상당히 많이 증차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는 학교 스쿨버스가 두대, 세대 이렇게 있는 학교가 있는데 여러가지 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 스쿨버스를 보관하는 차고가 준비가 돼있지 않아서 자동차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학교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차고가 없는 관계로 버스를 학교에서 세차를 한다든지, 또는 자동차의 관리문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차고 신축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서 하나 덧붙일 것은 이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차고신축도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의 울타리 보수공사라든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울타리를 보며는 어떤 데는 무슨 소음방지라든지, 무슨 여러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형무소를 방불케하는 빨간 벽돌로 아주 높게 담을 친다든지, 생각보다 많은 그러한 비용이 드는 울타리 공사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울타리 공사는 좀 학교는 개방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설계가 필요하지 않는지, 또 부디 할 수 있다며는 이런 차고 신축이라든지 이런 산적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는 전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마는 폐교 관리가 상당히 신문이나 방송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그 언론사에 의하면 폐교관리지침을 각 교육청에 하달했다고 그리고, 또 폐교 관리를 지금 부락의 마을회관이나 이러한 임대를 해줘도 좋다는 이런 그 보도를 읽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면 소재지 이외에 폐교대상 그 변두리 오지 농촌에서는 막중한 그런 임대를 내고서 마을회관으로 부락에서 임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무상으로 임대해 줄 그런 계획도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폐지 학교의 그 많은 사택들이 상당히 노후되고 방치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택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아울러서 같이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이재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김광수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교육개혁문제가 곧 발표되리라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교육청에서도 이 교육개혁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느라고 많이 심려를 경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대단히 바쁘시고 어려운 그러한 시점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원 증축부지 선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원 내에 교원연수원을 증축하는데 대하여 지난 2월에 제4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교육위원 몇 분이 단재교육원을 방문하여 교원연수원 증축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원연수원을 단재교육원 본관 전면 우측, 현재 잔디장에 증축하는 것을 연수원에 참여하는 교원들이 대다수 자동차를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차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 위치를 그 앞쪽 동산에 증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 장소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 자리에다가 증축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변경할 그런 의사는 없는가 묻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주요사항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확인서 또는 답변서를 징구해 간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

며 이와 관련한 업무 추진사업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밝혀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다음 과학관 사용 실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9회 임시회의 답변자료로 제출된 '94년도 학교과학관 운영실적표를 분석해 보며는 충주과학관 외에 5개, 과학관의 과학 실험실습 활용실적이 본교는 연간 2,582회에 10만 5천명인데 비해 타교는 연간 512회에 2만 1천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하다면 시 또는 군지역의 과학 교육센터로서 기초과학교육의 진흥에 기여케 한다는 과학관 설치 취지와는 달리 설치된 학교의 과학실로서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열악한 재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과학관을 각급 학교가 공통적으로 이용하여 설치취지와 같이 지역 과학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삼수국민학교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8월에 있었던 제27회 임시회에서 진천삼수국민학교 이전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주기계공고 이전계획의 무산과 같은 업무추진상의 시행착오를 우려하면서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도 같이 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에 의하며는 학구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소음과 교통사고의 위험등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1994년도 3월부터 '95년 2월까지 이전 학교의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3월에는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자 충청일보는 삼수국민학교의 이전계획은 백지화되고 이전추진위원회는 해체되었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 교육위원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취소하기에 이를 경우에는 사전에 취소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 임의로 계획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해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해위원 발언대로 나눔)

● **위원 박병해**

박병해 교육위원입니다.

9월 29일 날 서면 답변서를 받고서 다소

미진한 점과 또 더 요구하고싶은 것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직자들이 책임을 못다한 임무를 현직 후배교육자들로 하여금 차세대들의 세계화 무한경쟁 시대에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역군으로 교육해 내는 위대한 교육자로 우뚝 서게 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잘 이해하시고 마음을 열고 지혜를 짜서 열성으로 움직이는 충북교육의 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세계화 무한경쟁 시대에 세계를 한국이 주도하는 교육의 구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전번 질문의 첫번째가 학교운영면이나 교과목 지도 등에 대하여 도내 교원들이 아이디어를 공모할 의향은 없는가, 여기 답변이 교장, 교감 연찬회 실시, 의견교환 교사들의 아이디어로 수업연구대회, 교원 연구논문집 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은 교육적 가치가 있고 누락되어서는 안될 일이나 업무보고서에 매년 열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화를 위해서 모든 교원들이 마음을 열어주어서 경쟁에 동참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나 담임반에 대해

여는 이런 아이디어로 연구 지도하여 세계를 주도하는 역군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러한 교사들의 역군을 만드는데 유도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제 요즘은 상부에서 관행에 의한 지시나 상부에서 조직되어서 연구 추진되는 것은 점차 사라져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번에 교재교구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은 학교 교구설비 기준 '92년 2월 29일자로 교육부령이 확정되며는 점차적으로 확보 하겠다. 이거에 대한 것도 세계화를 향해 발돋움하려는 이때 '92년에 마련한 교육부령은 '98년이나 돼야 거동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과 경쟁하려는 말은 이러한 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교육자치시대에 민선 교육감이 아닙니까!

이 때에 우리는 세계화에 경쟁에 응비하려고 한다면 우선 세계화에 무한경쟁하려는 교육추진계획에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당연한 일 아닌가 이런 수립안에는 당연히 예산 수립도 돼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런 계획이 있는가 상세하게 묻고자 합니다.

세째번에는 세계화 수준이나 목표에 대한 인지 수준은, 이 답변은 교육장, 학교장, 전문직 교사연수 회의시 교육실험교과 모두 인지하고 있음, 무한경쟁에 대처하는 내용으로 다소 미흡하게 생각이 돼서, 예를 들며는

각 교과별, 업무별로 선진국들의 세계 수준을 탐지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서적이거나 기타 여러가지 자료를 구해서 숙독케하고 현지 답사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선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전직원들의 세계화, 경쟁화의 불을 하루빨리 붙여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데 대한 방안은 없는가, 사실상 이러한 방안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한가지 예를 소개 말씀드려 보며는, 각 교과 지도 시간에 평범한 문제의 술어가 이리데 부딪히는, 또 다른 그 뜻을 알게하는 거는 물론 이것을 이용하며는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며는 이것을 이렇게 연구한다며는 무엇을 제조하고 어떠한 교육에, 국가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이런 데 까지도 세심하게 설명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외국의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네째번에는 도·농간의 학력격차 해소방안, 교구설비확충, 재정지원, 교육자문위원회시 홍보, 우수 교사 배치하여 학생지도,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제 생각에는 물량보다는 앞서는 것이 중심적인 것,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의 확 털어논 열린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수준을 따라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이

럴 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개방화, 향토인재활용, 학생과 학부모의 공동수업, 부진 학생들의 지도방안, 이런 것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런 데 대한 계획은 없는가, 부진 학생은 도회지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여하이 구제할 것인가, 우열반 편성을 권했지마는 응하는 학교가 없다면 이유가 있겠지마는, 다 연구할 문제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지요. 학교교육은 타 기관과 달라서 학생 스스로 세계화 경쟁을 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경쟁자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가능합니다.

또 육성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교사를 여하이 유도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각 학교마다 지진 학생 지도를 위한 특별교실도 마땅히 이제는 마련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할 때에 교육청에 이러한 방안은 있는지, 다섯번째에 무한경쟁으로 인한 인성면, 학습면에 역기능이 없는가, 답변에 학습방법은 토론, 토의식 방법으로 학습성적은 다르게 기록을 안하고 종교적 발달과정을 서술식 기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부터 말씀을 드리며는, 모 중학교에서는 1학년 지도방법을 단원 내용의 대부분 대화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내에

서나 등·하교시에 배운 바 당일 학습한 것을 서로 대화로 익혀서 우선 완전히 암송하게 하여 단원별로 5분 테스트도 실시하여 확인한다합니다.

그 효과를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경쟁을 즐겁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교육자들은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의의 경쟁방법 강구를 부탁을 합니다.

여섯번째에는 체육선수 중도 탈락 학생들의 대책은, 답은 국민학교 중도탈락자 없음, 대학진학 탈락자 직업전문학교에서 기술습득, 이 세계화 시대를 위한 경쟁차원에서 선수 양성을 여하이 해야 되며 탈락학생들의 희생이 최소한 걱정한다고 하는 질문이었었는데 선수 훈련은 체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종목별로 중·고·국, 이렇게 국민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로 그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하면서 각급 학교의 지도 교사, 해당 학교장 그리고 남녀선수 모두가 한가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전 훈련선수들의 합숙훈련을 실시하며, 또 합숙하는 이때에는 중앙경기연맹과 종적인 유대강화를 모색해서 국제경기대회에 최근에 참가한 유능한 현역 선수를 중앙간부로 하여금 동반초청을 해서 지도를 받도록 한다면 세계수준을 손쉽게 체험할 수 있게 되며 선수들의 화목, 단합,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학교장들의 성의와 단합된 생각입니다.

기왕에 소비하는 시간, 경비, 노고, 지도, 기술등 모든 종합적으로 우리가 유효하게 방안을 모색을 한다고하며는 현재보다는 월등한 성적도 가지고 이를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희생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도훈련 혁신방안은 없는가. 일곱번째의 의식개혁입니다.

흔히 교원들이 옛날과 달라서 학급운영도 교과지도면, 생활지도면도, 이런면이 희생적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앞서 말한 제자 사랑에 교사들의 마음이 활짝 열게 유도해야 합니다.

우선 의식개혁의 첫번째 문제인 흔히 말하고 있는 촌지봉투문제 등도 학교면 학교장, 과장, 국장, 여하간 어느 부서이든 그 장부터 개혁의지를 밝히고 실천해야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며는 저는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실천해왔습니다.

봉투의 금액을 바로 우송을 합니다.

뭐 그것도 증인이 있을 수 있도록 방법도 강구합니다.

이 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소문이 나고보며는 감히 금전 제공을 시도하는 사람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데 대한 여러분들의 의지표명은 그러한 용의는 있는가, 학생 생활지도면도 또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의식개혁이나 지도교사들의 의식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청주시내에 범법학생수를 1월 1일서부터 5월 18일 현재까지를 조사를 해보며는, 보았더니 절도가 국민학교 스물, 중학교가 이른 여덟, 고등학교가 마흔 여덟, 강도가 중학교 아홉, 고등학교가 열 둘, 이 열둘 안에는 강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품갈취가 중학교가 스물 하나, 고등학교가 서른 넷, 폭력이 중학교 아홉, 고등학교 예순 셋,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불량 씨클같은 것을 보며는 검찰청 제공인데 이거는 아마도 이미 처벌이 된 것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내준 것 같이 생각이 돼서 다소 불확실합니다마는 고교 파라다이스가 여덟, 또 고교학생의 시라소네가 세사람, 또 경찰서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중학교에 소년시대라고 하는 씨클, 고등학교에 소피아라고 하는 씨클, 이 새로운 씨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한발 앞서서 설문조사까지 한 점, 그 성의에 감탄했습니다.

경찰간부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것은 좀 고쳐졌으면 이런 요망사항이 있는데 그 첫째가 합동교외생활지도를 할 때에 경찰관에만 의존하고 적극성이 없다. 또 적발된

사항은 부모에게 통지해야 되겠는데 이를 기피하고 있다. 개선했으면 하는 그 의견의 첫째가 학생관리소홀, 사전 탈선예방이 꼭 미흡하게 느껴진다. 둘째번 학생비행 은폐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셋째 번에는 학생들의 신고정신이 아주 거의 없다.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아서 범법자가 점점 더 늘고 있다. 범법학생들이 있어서 학교에 연락을 해보려는 교사들이 전에는 찾아와서 우리가 책임질테니 우리한테 돌려다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고 다만 퇴학처리에 급급한 이러한 경향이 요즘 돼 있다. 그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하며는 효과적으로 의식개혁 차원에서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방법도 한번 제시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박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해위원 자리로 돌아감)

다음은 권혁풍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발언대로 나눔)

● 위원 권혁풍

권혁풍교육위원입니다.

제가 여덟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신문교육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NIE라고 해서 newspaper in

education, 혹은 NIC classroom, 이렇게 해서 신문교육을 지금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확산돼 가고 있고 또 저희가 볼때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의 뜻에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신문교육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준비한 자료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신문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 어떤 그 이미 주어진 어떤 지식체계를 그대로 보고 암기하고 하는 이런 식의 수업은 이런 식의 교육은 벌써 옛날 구식수업이다. 저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회의 거울인 이 신문을 가지고 어떤 고정된 교재에 국한되지 않고 붙들어 매지않고 신문에서 여러가지 그 사실들을 입수를 해서 이거를 분석하고 또 거기서 개념을 추출하고 거기서 일반화를 뽑아내고 그래서 어떤 원리를 찾아내는 이러한 훈련이 학생들한테 고등정신능력을 배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않을까, 그래서 교과중에서도 특히 사회과 교과라든가, 국어과라든가, 기타 수학이라든가, 과학도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신문이 우리 교육재료로서 아주 유효한 뜻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서 제가 수집한 자료를 몇가지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요거는 그 어떤 포틀랜드의

한 국민학교 교사가 쓴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신문 독자층은 T.V에 많이 뺏겨왔으나 독자층을, T.V의 한계상 T.V로서는 중요한 정치, 사회문제를 지성적으로 다루기는 힘들다. 반면에 신문은 주어진 문제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로 NIE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정기 신문을 읽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지성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아시다시피 T.V는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매체효과는 큼니다마는 학생들의 교육재료로 쓰기는, 물론 복사를 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기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들 들으면 “교사들은 자기 수업을 통하여 실생활 적용으로 그 프로를 활용하고 있다. NIE프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주요 주제로서 쓰여진다. 신문이 가장 큰 장점은 교실에 있어서의 적응성이다. 유치원에서는 문자로서 숫자 확인자료로서, 중학교는 사회과 교재로서, 국민학교에서는 수학 시간에는 쇼핑리스트로서, 독해훈련 자료로

서, 고교에서는 광고자료나 정작 논문의 기초자료로서, 이렇게 학년별로 주제별로 유용하게 쓰여진다.” 이런 자료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뭐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사가 전통적 교과서 대신으로 신문을 대용하고, 학교도, 대용하는 학교도 없지않아 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신문이 교과서를 밀어내지는 못하고 교과서를 적용함으로써 학습을 강화한다. NIE프로는 학교 공부에 보다 큰 적합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생에게 교실을 뛰어넘어 세계에 다다르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는 이러한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여기 얼마든지 신문의 유용성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제도가 도입이 돼서 다른 데서는 상당히 신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는 이게 어느정도 돼가고 있는가 그 개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초·중·고별 교과별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물론 지금 교육과정이 중급화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어떤 그 재량이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 어떻게 그 현실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제와 전망은 어떤 것인가, 이걸

첫째 묻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능력별 반편성, 지금 현재 교원대학의 부속고등학교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하고 있는가, 그 개황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그 세부적으로 어떤 교재를 자체 제작해서 능력에 따라서 이걸 적용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물론 평등교육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며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학생의 능력을 기초로 해서 수업 반편성을 한다. 혹은 보충수업을 한다 하는 것도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만큼 확산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물론 역기능도 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평생을 두고 열등감에 싸여 살게한다든가, 또 능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때 그 학년에 국어나 수학을 조금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능력인가, 이렇게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별 변화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계신가, 앞으로 어느만큼 확산 가능성이 있는가, 요걸 묻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학생 성폭행 범죄 실태 및 예방대책입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성인들까지도 참 성폭행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엄청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러한 그 나쁜 영향이 끼쳐져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그 실태가 전개된다고 보겠습니다.

얼마전 사석에서 어떤 그 법원의 요원이 저한테 그런 말을 들려줘요. 지금 법원을 통해서 재판절차까지 오고 있는 그런 학생범죄 이게 상당한 숫자가 있다. 즉 검찰이라든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 실태가 엄청난데 과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나와서 자원인사로 초빙을 해준다면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제가 듣고서 참 우리가 미처 모른 그 성폭행 실태가 엄청나구나 하는 걸 느끼고서 과연 실태가 어떠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돼 있으며 처리하고 있는 실태는 어떤 것인가, 요거 세가지 묻습니다.

네번째는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과 교장에게 위임, 배분하고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거는 저도 몇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규칙이 만들어져 가지고 규칙을 규칙에 준해서 모든 것이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을 보니까 '93년 10월 25일날 전면 개

정을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칙을 정하신 이상 그대로 하는 게 물론 올습시다마는 지금 자치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권한과 책임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위임을 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식의 교육행정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못 해봤습시다마는 예를 들어서 방학 기간을 정한다든가 할때 벌써 방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추후에 와서 교육감님이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방학기간은 어떻게 지역교육장이나 이룬데 위임을 해서 그 실정,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당히 조절할 수는 없는 것인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청에 보니까 그 교육감 권한을 교육장 혹은 교장에게 위임하는 조례를 교육위원회에서 발의가 돼가지고 이것이 통과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것까지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의 위임사항, 교장의 위임사항, 또 그 과제와 전망, 이렇게 세가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고입제도개선안, 지금

타시·도에서는 벌써 고입제도에 대해서 그 원칙을 벌써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같은 데서는 무시험으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무시험이다. 중학교에서 여러가지 그 평소의 생활자료가 돼서 무시험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원칙이 발표가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는 아직도, 어떤 그 더 좋은 제도를 만드느라고 연구 중이신 건지 그 개선안이 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전부터도 물론 고입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국민학교 수준에서는 상당히 그 전인교육이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만 올라오면 입시경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민학교서 기초가 잘 닦여져도 중학교 오면 이때부터 입시경쟁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점수경쟁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외국사람들도 한국사람을 보고서 “한국인의 그 높은 교육열은 상당히 부럽다. 아무리 부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배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람이 마치 공부의 중독중에 걸렸다. 이렇게까지 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공부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

라 있는 지식, 기성지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비판도 하지않고 그대로 주입하는 이러한 공부중독증, 이것을 좀 우리는 용감하게 탈피할 수 없는가, 그래서 중학교서부터도 좀더 국민학교와 마찬가지로 전인교육 수준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중학교 교사들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 했던 여러가지 교육 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경쟁이 거의 없는 무경쟁 상태인데 꼭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 물론 앞으로 발표될 교육개혁안에도 물론 나오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개선안이 어떤것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성지도, 즉 우리는 지금 점수만 가지고 따진다면 점수경쟁가지고는 세계 경쟁화에 뛰어들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기초,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평소에 아이들의 그 인성을 지도해야 될텐데 그러자면는 예·체능을 중시해야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안되고 예능, 체능, 이것을 고루고루 가지고 학생들의 봉사정신을 길러줘야 될텐데 중학교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참 누가 봐도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으리라 봅니다.

현재 우리 중학교, 충북의 중학교는 입시 위주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성지도와 평가 및 그 반영방안,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기타 다른 어떤 그 내신반영안이 있으면 내신지도 반영안,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는 초등, 중등 연계지도 방안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것과 비슷한 말인데 국민학교에서는 상설특활반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학교만 올라오면 딱 끈어집니다.

아무리 국민학교서 유도를 열심히 가르쳐서 기초를 닦아왔다 하더라도 중학교 오면서 이게 끝나고 말아요. 그러면 점점 올라 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올라 갈수록 이게 교육이 거꾸로 잘못 된거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서 잘 가르친 기초를 중학교에서 이어받고 고등학교에서 이어받고 이게 계속 이어받는 어떤 방안이 수립되지 않고는 우리의 교육은 황폐화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선생님, 지도자 문제인데 지도자는 사실상 1년이면 전보대상이 돼서 탄 학교로 갑니다.

한번 가르쳐준 거를 다시 계속해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주종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자치도 되고 하니까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인사들, 그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축구하면 축구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미술하면 미술에도 있고, 컴퓨터하면 컴퓨터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명예교사로, 지금도 국민학교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예교사로다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잘 물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중·고등학교도 계속 어떤 그런식으로 좀 해볼 방안을 갖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는 교사 전보상 교장의 인사제청권 현황입니다.

이게 중등학교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과 문제점과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이걸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는가하며는 그 각 지역교육청마다 인사 서열이 있습니다.

전보서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열을 따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국민학교에서는 농학을 지도하는데 그

농학지도하는데 꼭 A- 교사가 필요하다. A 학교에서는 A-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서열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학교 그 A학교 교장의 요청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 A-교사를 A학교에다가 배치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적재적소에 교사지도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지도에 차질을 초래하는 이런 예가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망에 자기가 걸리는 그런 뭐가 아닌가, 즉 자승자박의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문제는 상당히 공정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서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국민학교도 교장에게 어떤 제청권을 줘서 우리 학교에는 꼭 이 교사가 필요합니다 할 때는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있는 서열방법이 없는가, 인사방법이 없는가, 요걸 한번 묻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는 특수학교 현황입니다.

시간이 다가서 죄송합니다.

인사현황, 특수학교를 우리 도내에 여러가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인사현황, 또 시설현황, 또는 직업 보도현황, 이런 것을 몇가지 묻고 자세한 것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50회-제2차]

<p>죄송합니다. (권혁풍위원 자리로 돌아감)</p> <p>● 의장직무대행 이상일</p> <p>권혁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p> <p>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준비를 위하여 답변은 제3차 본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p> <p>그리고 산회후에는 청주혜원학교를 방문하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아시다시피 어제 우리가 방문한 혜화학교</p>	<p>나 오늘 우리가 방문할 혜원학교는 지체가 부자유스럽거나 정신이 박약한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p> <p>이제 우리의 교육도 이들에게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하며, 각별한 애정을 더욱 쏟아야 할 것입니다.</p> <p>교육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p> <p>이상으로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2시 04분 산회)</p>
-------------------------------------------------------------------------------------------------------------------------------------------------------------------------------------------------------------------------------------------------------------------------------------------	------------------------------------------------------------------------------------------------------------------------------------------------------------------------------------------------------------------------------------------------------------------------------------------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8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김근학,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최명선.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5월 24일 (수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 기타안건 처리

##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1시 00분 개의)

###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1시 00분)

###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계관 별로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에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 교육감 정인영

제일 먼저 이상일위원께서 질문하신 과학교육원의 이전계획안의 교동국민학교 재산의 처리문제, 그리고 충북공고 지하에 매설

된 상수도관 처리문제, 요 두가지는 본인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탄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과학교육원 이전과 교동국민학교 재산 처리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의 이전에 필요로 하는 경비의 특별교부금 신청을 '94년도에 교육부에다가 54억 3천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원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교육부와 계속 추진을 교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전 경비가 교부되는 대로 이전을 신축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국민학교 건물 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주간에는 기능직 공무원이 상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보안 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북공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 공사와 시설배치 계획을 사전에 협의를 했고, 서면에도 저희들이 건물 배치를 계획대로 하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와 같은 서류상에도 양해가 돼서 공사를 착수를 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설할 계획은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설에 소요되는 경비가 12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설비가 설계시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설계 당시에는 건축비에는 이설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보충질의 하실 분 하시죠.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위원 이상일

보충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공고를 관통하는 상수도관, 그것이 이제 우리 교육위원들도 처음에는 그것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이전을 해야 하느냐, 또 그냥 두고 공사를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여러가지 토론도 있었고, 그냥 뒀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올 3월달에 거기를 한번 현장을 가 봤더니 그 매설된 위치가 약간 불룩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포장을 할 수도 없고, 물론 지상 건축물은 아무것도 못 세우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은 뭐 관이 튼튼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5년이고, 10년이고 관이 낡았을 때, 혹시 파손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한번 이전할 이설할 계획을 한

번 더 세워주시는 게 어떤가 하고.....

● 교육감 정인영

아,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이유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 보안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설하는 계획은 구상을 하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 장기라고 해서 5년 후까지도 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일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학교에다가 그런 지하 매설물, 혹시 상수관이나 또는 가스관이나, 송유관 같은 것이 지나가는 학교가 있으면 그 지하 매설물 지도라도 만들어서 학교에 비치할 하며는, 현재 선생님들이 계실 때야 거기 그런 게 있으니까 하고 알고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자리를 바꿀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 표시가 된 지하 매설물 지도라도 학교에 비치해서 활용해가지고 그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포크레인이라든지 무슨 중장비가 거기 지나가서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정인영

요새 안전사고 관리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 의장 김영세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침묵)

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다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김근학

부교육감 김근학입니다.

먼저 이상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홍학원과 청석학원 사태에 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홍학원 사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며는 신홍학원의 사태는 1990년 4월에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를 현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매각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사장과 현재 법인 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이사장의 부인 김명금씨가 토지매수자 최재웅씨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2억 7천 75만원을 받아 장학금으로 용도 관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서 이사장은 불기소 처분이 되고 김명금씨는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 측에서는 장학금 명목도 아니고 토지거래와는 관계가 없는 형제 간 개인적인 거래에 의한 자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인허가 절차는 아무런 법적 인 하자가 없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 혐의가 있는 금액 2억 7천 75만원은 금년도 4월 27일 이사장 개인으로부터 징수를 해서 법인에서 별치, 예치토록 우선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재판 결과에 의하여 처리토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8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 부인인 김명금 이사는 지난 5월 12일 날, 자진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서 임원 개편이 6월 초순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학원산하 교직원이나 학생은 전혀 동요됨이 없이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석학원이 이사개편과 관련한 사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석학원은 법인의 이사개편 등 학내문제로 학원측과 청주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와 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원에서는 지난 5월 4일 현 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설립자의 친인척 3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청주대학교 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인사 1명과 학원산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표 인사 1명

또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추천한 인사 4명, 그리고 교육부에서 추천한 인사 중, 대구대학교 노명식교수를 이사장으로 선임해서 현재 9명 이사 중, 7명을 교체하여 현재 교육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대학교 교수협의회와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관선이사 파견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한때나마 대학생들은 수업 거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학원산하 초·중·고등학교 교장단 및 교직원과 동문회, 또 대학동문회에서 관선이사 파견 반대는 물론 교수협의회와의 비효율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었고, 대학교수 중, 고입에 반발한 교수들은 새로운 교수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청석학원 사태와 관련해서 상황이 발생시마다 학원측에서 이사장이 본청과 수시로 그 상황에 대한 설명도 계셨고, 그 대응방안을 협의해 와서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대응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관계기관 간에 수시로 의견 교환 등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학원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학원산하 6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

생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재교육원 교육연수동 건물을 본관 전면 동남쪽 잔디장에 증축하고 현재 계획 중인 신축부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치이동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였음에도 동 장소에 증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증축부지의 위치 변경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현 시점에서 학생교육원과 교육연수원의 완전 기구 독립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동산에 증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앞동산에 증축하는 것은 토목공사 등 부대비용이 약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해서 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현 위치에 증축하므로써 기존 시설은 학생교육원으로, 증축하는 새로운 건물은 교원연수동으로 사용을 하여 일부 부족한 시설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시설활용의 상호 보완과 기능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현 위치에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 확보 문제는 동 장소에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건물 주위에 주차공간이 현재보다 더욱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증축부지에 위치를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위원 중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하고 말함)

다음은 김광수위원님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내용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면, 그 감사원에서 3월 13일서부터 3월 25일까지 감사한 내용은 국민학교 교원 시·도 간 정부에 관한 사항에 12건이 주요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이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감사원의 처분이 끝나면 자세한 내용및 그에 대한 대책을 추후에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부교육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이상일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 의장 김영세

예.

● 위원 이상일

그 사립학교에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그 현황, 그리고 그것이 변동됐을 때, 그 변동사항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니까?

● 부교육감 김근학

에 받고있습니다.

● 위원 이상일

예, 그러면 토지나 건물을 매각했을 때

● 부교육감 김근학

매각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 승인을 받아야 되죠.

● 위원 이상일

승인을 받아야 되죠.

● 부교육감 김근학

예.

● 위원 이상일

승인받으며는 그 실제로 거래된 액수와 그 합계가 그 액수가 학교법인에 차질없이 입금 이 됐는지 하는 것도 서류상은 보고를 받으 시죠.

● 부교육감 김근학

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일

그런데, 그게 차액이 졌을 때에는 변상을 합니까?

● 부교육감 김근학

그 정당하게 보상을 받든지 대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안들어 왔을 경우에는, 안 들어 올리 없고요, 안들어 올 경우 나중에 발견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 위원 이상일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각을 하고 뒤로다 돈을 받아서 쓴다든지, 뭐 이런 것이 혹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며는, 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유지 재단에서 돈을 좀 많이 학교를 넣고 싶어도 많이 넣는 학교는 지원을 덜 해주고 입금이 하나도 없는 학교는 꼭 필요한 만큼은 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애써서 유지 재단에서 나오는 돈을 학교로 넣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말인지.

● 부교육감 김근학

그거는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자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수익업종에서 수익이 발생하며는 학교로 전출시켜서 학교운영비에 충당해 학교발전에 이렇게 사용토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국고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타성때문에 아마 그러한 타성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원래 사립학교는 그 설립목적이 설립자가 그 모든 비용을 지변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사학이 공교육 쪽에 부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학에서 수익이 있는 데도 부담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운영하는 그런 분들한테 자세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상일

그래 그 사람들 얘기가 유지재단에서 돈을

좀 많이 넣으려는, 그만큼 더 줘서 학교가 더 풍부하게 해줘야 하는데, 들어오는 것 만큼 빼고 주니까 애써서 누가 넣으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가지고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 **위원 장중호**

저, 제가 한 말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다 끝나셨습니까?

● **위원 이상일**

예

● **위원 장중호**

지금 감사원 관계, 여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인데, 엿저녁에 9시 뉴스에, KBS입니다.

1에서 또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것이 감사원에서 열셋거리가 지적이 됐다해서 제천 운학학교, 운학학원이 나왔는데, 비단 이런 T.V 뿐만 아니라 뭔가 교육청에서 이 언론관계를 좀 다독거리다할까, 똑같은 내용을 이 아마 T.V에서 몇번 제가 기억하기에 두, 세번은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을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한다면 교육청의 위신도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그 불신을 받게 되는 거고 하니까, 이 언론관계를 잘 좀 다독거리서 같은 내용을 자꾸 나도록 하지않고, 또 신문에도 그렇습니다.

신문에도 대단치도 않은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잘,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다독거리서 그 좋지 않은 뭐가 보도나 T.V에 이렇게 방영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당부의 말씀입니다.

● **부교육감 김근학**

예 알겠습니다.

언론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올바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올바르게 평가되고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으세요?

(위원 모두 침묵)

예, 그러면 부교육감님한테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미 어저께 감사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13건이라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는 결과처리는 나중에 온다손치더라도 현재는 지적된 사항이나마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 **부교육감 김근학**

예, 감사관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감사한 내용, 감사한 내용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각종 확인서나 자료를 징구를 해 갔습니다마는 그것이 자기들 나름대로도 그것이 처분이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인데 저희들한테 감사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며는,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러니까 결과 처리는 나중에 하고 지금 현재 지적된 거, 이게 왜고 하니 이미 언론에 이게 흘러나갔어요.

열세 건이나 흘러나갔는데 교육위원들이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과정이라도 서면이라도, 공개하기가 맞하시다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부교육감 김근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권혁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관해서 어제 보도된 내용은 13건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하는 그런 보도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 부교육감 김근학

아직 처분이 된 게 없습니다.

처분이 된 거는 없고,

● 위원 권혁풍

보도내용은.....

● 부교육감 김근학

그 분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가신 것이 13

건 되는데, 13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권혁풍

주의조치나 경고조치를 받은 일이 없고

● 부교육감 김근학

아직 감사원이나 처분지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 위원 권혁풍

그러면 방송이 잘못됐네요.

● 부교육감 김근학

예

● 위원 권혁풍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더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다음 초등국장님 나오세요.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권혁풍위원님이 질문하신 신문교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이 신문을 교육적으로 활용을 한다 하는 것은 교육계에서 다 지금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교육, 신문교육 또 영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NIE,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좀 생소한 감이 좀 듭니다.

신문을 교육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



는 얘기는 우리가 뭐 교사라면 늘 활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신문교육, 이렇게 단위화시켜서 실은 신문교육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씁니다마는 그러한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신문교육이 어느정도 활성화되고 있느냐, 또 본도 교육청에서는 이 신문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는 이 신문교육이 지금 저희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좋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 외국에는 신문교육을 이 신문사, 신문발행인 협회, 미국같은면 미국의 신문발행인 협회, 일본하면 일본의 신문발행인 협회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학교에 신문을 보급을 시켜가면서 이 신문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이 신문사라든가, 이 신문협회가 주관이 돼서 학교교육에 신문을 활용하도록, 이러한 지원체제가 없어가지고서 선생님들이 신문을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나라 현실로 보서는 아직 이 신문교육, 이것이 활성화 되어 있지를 못하다.

지상에 발표된 거를 보며는 강원도에서 모 국민학교, 경기도 고양에 있는 원당국민학교 모 선생이 이 신문교육에 대해서 열성을 표하고 있다. 이런 건 지상에서 저희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히 이 수능시험이 돼가지고서 고등학교에서 사설을, 이 사설을 이 논설 수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또 국·중학교에서 스크랩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든가, 또 사회과에 어떤 통계자료를 좀 신문에서 얻는다든가, 또 교양, 문화, 특히 이 훈화자료, 시사교육, 교실에 시사코너를 만들어서 그 시사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준다든가, 또는 계기 교육자료로, 이런 뜻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쪽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이렇게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권혁풍위원님이 질문하신 특별활동과 예·체능 지도에 있어서 초·중등의 연계지도 방안, 거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활과 예·체능 지도의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각급 학교에서 특활 및 예·체능 지도시 그 특수재능아 특수재능아를 적극 발굴해서 학교와 또 지역사회에 연합해서 연계해서 지도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 특수재능아 지도 자원은 누구냐, 특기 지도교사, 또 지역인사, 또 명예교사, 이런 자원인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방법은 상설특활반을 운영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올리고 연계지도, 국·중이 어떻

계 연계를 하고 있으나, 국·중,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시, 그러니까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시에는 그 특수재능아 지도 누가기록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학교에서부터 작성이 되며는 그것이 교육청을 통해서 중학교로, 또 중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교로 누가기록카드가 이게 이렇게 이관이 되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록카드의 이관현황이 현재 어떠냐,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이관돼 있는 카드가, 뭐 그 분야는 말씀을 안 드리고 534명입니다.

534명 분이 있어요.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관된 게 얼마냐, 382명입니다.

그러며는 916명의 특수재능아가 지금 연계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권혁풍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신 특수학교현황, 지금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주셔서 자료를 드린 걸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풍위원님이 질문하신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과 교장에게 위임한 현황이 어떠냐, 교육감의 행정권한을 교육장, 또는 교장에게 어떻게 이양을 시켰느냐, 이 질문이신데 교육감 권한은 즉 교육규칙 제363호입니다.

'93년 10월 25일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교육장에게는 위임사항이 국·중학교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크게 말씀드리면 감독권 등 56건을 위임하고 있으며 이것은 교육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42건에 비해서 33%가 늘어났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각급 학교장에게는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주임교사의 임용 등, 18건으로 교육자치 실시 이전의 13건보다 38%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제 그 어느 시·도에서 위임사항을 조례로다가 제정하는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 규칙의 내용이 행정기관의 내부 질서에 관한 이런 사항이므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검토를 거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서 확실적인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으며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가지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초등교육국장 소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위원 권혁풍

예.

● 의장 김영세

권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권혁풍

국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째 신문교육에 관해서, 이미 우리가 신문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시사교육 같은 것은 벌써부터 활용하고 있는 바인데 그러나 우리 실정에는 아직 활발치 못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특히 NIE라는 그 고유명칭이 있는데 이게 생소하다는 말씀을 듣고서는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국내에도 벌써 도입이 돼서 상당히 이게 확대가 되고,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고장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원당국민학교라든가, 뭐 강원도도 하고 있는데, 이 NIE제도는 미국서는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에도 도입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종전의 우리가 하고 있던 시사교육 차원이라고 할까, 혹은 수능시험 대비의 차원이라고 할까, 이 정도에 그친다면은 우리가 상당히 충북교육이 앞서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상당히 뒤져있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문이라고 하며는 먼저 제가 질문을 처음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의 거울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신문이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문제입니다.

얼마만큼 정확한 보도, 사실보도 하느냐, 거기에 역기능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신문을 믿고서 어린 학생들 교재로서 이걸 사실로 완전히 인정을 하고서 이걸 교육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옆으로 별개로 쳐놓고 그래도 신문이라는 것을 일단 사회의 거울이다. 신문이 어떤 착오 보도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신문이라는 것은 당위성으로 볼 때 이 사회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신문이라는 그 사실, 이거는 충분한 교육 재료가 되지 않느냐, 특히 사회과라든가, 다른 과도 물론 중요합니다.

과학과라든가, 수학과, 어제도 제가 말씀은 많이 드렸습시다마는 모든면에서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그 사회과가 기존 지식, 기성 지식을 그대로 갖다놓고서 이걸 반복해서 읽고, 외우고, 이걸 이해하고 이런식 수업은 가지고 이건 벌써 뒤떨어진 수업 아니냐, 학생들이 마치 학자의 그런 그 자세를 갖고 작은 학자가 되어서 어떤 그 사실을 기초로해서 거기서 그걸 개념을 추출하고 여기에 일반 원리를 찾아내고, 이론을 도출하는 그

런 훈련을 해서 학습방법을 교육하는 그러한 차원이 돼야만 뭔가 탐구수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참 고등정신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수능시험 차원이라든가 뭐 시사교육차원가지고는 신문교육 NIE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적어도 NIE라는 표현을 할려면 좀더 우리 충북에서도 선진교육의 뭔가를 정보를 받아서 새로운 그 적극적인 아주 창조적이면서도 발달한 그러한 수업방식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린 열린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답답한 교재, 교과서 하나만 가지고 만날 한다며는, 이것은 아이들 교육에 뒤떨어지는 방법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참 더욱 더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문을 이용해서 교실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신문을.

뭐 사회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어과도 그렇고, 과학과도 그렇고, 전과목에 걸쳐서 신문을 적극적으로 교육재료로 끌어들이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봐서 앞으로 더욱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두번째 초·중등 연계지도에 관해서 특수재능아를 916명을 기록카드를 만들어서 하고 계시다, 제가 참 처음 듣는 말씀으로서 굉장히 참 고무적인 얘깁니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걸 전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이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갈때 특수재능아가 얼마나 발굴이 돼서 이게 되며, 이게 중간에서 끊어지는 그런 그 사태가 있지않나 하는 걱정이었는데 916명이라는 적지않은 학생이 계속 지도를 받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욕심을 더 낸다며는 특수지능아, 재능아, 여기에 좀 멈추지 마시고 좀더 일반적으로 상설 특활반이라는 그런 개념이 국민학교에서 됐던 것이 중학교까지 어떻게 되면 좀 별로 확대 지도되면서 좀더 심화지도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을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특수학교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하나하나 질문을 드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 의장 김영세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일괄해서 말씀하시죠.

● 위원 권혁풍

그래야죠?

● 의장 김영세

예

● 위원 권혁풍

그러니까 여러가지를 한번에 다 하겠습니다.

## ● 의장 김영세

예

## ● 위원 권혁풍

특수학교 관계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현황을 보니까 예·체능에 정원현  
원, 물론 여기 보니까 정원이 다 찼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195명 정원 교사에, 195명이 다 배정이 돼서  
조금도 법적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러한 아주 완전무결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타시·도하고 비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타시·도에는 예·체능 전담과목 그 중치교  
사가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충북만이 예·체능 전담  
교사가 없다. 어째 다른 시·도에는 정원이  
예·체능 전담교사가 있는데 우리 충북에는  
예·체능 전담교사가 없는가, 특히 어제 또 제  
가 혜원학교를 가 봤습니다마는 그 선생님들  
이 굉장히 참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봉  
사를 봤습니다.

특히 일반학교 선생님하고 좀 다르다는 것  
은 일반학교 선생님들은 제자를 길르면 그  
보람을 바로 찾습니다.

몇년 안가서 그 학생들이 커서 선생님을  
알아보고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교사로서의 만족감과 충족

감을 느낄수 있습니다.

근데 특수학교 교사는 그게 아닙니다.

가서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자기 희생을 해  
가면서 물론 어떤 그 보상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한 그 자세로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체능 부분은 어떤 전담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충북만이 유독 예·  
체능 교사가 없다.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것  
을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근무 평정도 제가 가서 물어 봤  
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근무 평정을 하느냐 했더니  
초·중등이 다 있어서 유아, 초·중·고, 이렇  
게 네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  
서 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교사근평을.

그래서 다른 데가 어떤가 하고 타시·군을  
보니까 타시·군을 알아보니까 그게 아닙니  
다.

타도, 타도죠. 타시·군이 아니라, 타도에는  
그걸 분리해서 유·초·중등 3구분 평정하  
는 데도 있고, 유·초·중·고해서 4구분 평정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타시·도는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충북만  
이 유독 한군데서 통합해서 평정하는 이유가  
뭔가,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가, 두가지  
를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학교요람 기준으로 해서 여쭙봤는데 시설기

준령에는 기준에 다 적합하게 돼 있는가, 이 건 학교요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시설기준령에는 혹시 미흡한 것이 없는가 이거를 여쭙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보도 현황을 보니까 청주혜원학교 같은 데는 23%밖에 취업이 못되는 데 비해서 맹아학교라든가, 충주성심학교같은 시각, 청각장애학교는 100%가 취업된다 하는 얘기는 상당히 참 고무적인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정도로 여쭙보고 또 교육감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위임에 관한 규칙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75년부터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20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 계속 아마 권한을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확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자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교육감한테 있는 것인데, 고유권한이.

그것이 일조의 목적에 따라서 행정 능률이라든가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서 이것을 위임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책임과 권한이, 권한과 책임이 자체로 있는 것을 확대해 가는 것인지 요것을 다시한번 여쭙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며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교육자치 시대가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을 이렇게 위임하는 식의

그런 개념보다는 처음부터 어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라는 그런 책임하에서 권한을 처음부터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그 학교단위책임경영제, 이러한 개념까지는 아직은 가지않았지 않느냐, 최종 개혁이 개정된 것이 '93년인데 그 정도까지 간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교육감 권한을 능률향상을 위해서 그냥 위임하신 건가, 그 방향이 어떤 것인가, 전망이 어떤 것인가, 요걸 묻고 예를 들어서 드리면.....

● 의장 김영세

저, 권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어요.

● 위원 권혁풍

그러면 한가지 한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다 통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 신문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뭐 신문교육에 시사교육이니, 또 고등학교가 시설을 통해서 논설수업을 하느니, 제가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요즘 미국에서 이게 1795년에, 200년 전에 시작이됐습니다.

그래서 이 NIE교육이 프로그램화 돼야 되는데 미국과 독일은 이 신문을 통해서 이 신문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민주시민 양성의 그 관점,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그런 관점한다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정보화 제공이다. 이 신문이 정보화 제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신문교육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물론 이 두가지가 다 좋겠죠.

특히 정보화 제공이라고 해서, 그래 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올렸는데, 어제 중앙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나오는 모 일간지를 종합분석을 해 보니까, 뉴스 종류가 서른 여섯가지입니다.

서른 여섯가지 중에서 우리가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스물 아홉가지입니다.

여기 저희가 전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쪽으로 이것을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갈 것인가, 정보화 쪽으로 접근을 할거나, 미국과 독일같이 민주시민의 어떤 양성 측면에 접근해 나가느냐, 철학 그 관점, 그 다음에 충북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신문교육을 해 나갈거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열심히 연구해서 앞으로 신문교육을 권위 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수준까지의 신문교육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는 특수학교 관계에서 예·체능 전담교사를 왜 특수학교에 이걸, 타시·도는 두고 있는데 왜 우리 도는 안두고 있느냐, 그 말씀이신데 이 교육부로부터 이 정원이 유치원 교사 정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정원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타시·도에서는 그러면 거기도 마찬

가지로 거기도 정원을 그렇게 배정을 받았을 건데 왜 충북만이 정원을 왜 이렇게 좀 조정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수학교 정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 정원을 특수학교 정원으로 이렇게 옮긴다, 옮긴다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행정적으로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좀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타시·도에서는 국민학교 정원을 특수학교 정원으로 돌려서 교과전담 교사를 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근무평정관계, 이 단위기관별로 왜 하고 있느냐, 유치원, 초·중·고 선생님을 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타도는 전부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실무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은 여기서 학교요람에서 우리가 작성을 했는데 시설기준령에 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람에서 뽑은 것이 지마는 시설기준령에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직업보도현황, 해원학교 직업보도 현황이 좀 적으냐, 이 말씀은 해 주셨는데 이것이 그 특수학교의 학생들의 장애의 종별, 시각이냐, 청각이냐, 맹이냐, 농이냐, 여기에 따라서 직업보도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맹학교의 학생들이 직업보도되는 거 하고,

정신지체가 직업보도되는 거 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장애특성에 따라 똑같은 직업보도를 가질 수는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이양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학교장 책임운영제, 이것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방향까지 지금 권한 위임을 시키고 있는거냐, 그런 질문, 보충질문 말씀이신데, 그런 쪽으로 현재는 행정 능률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한다. 그런 쪽에서 권한 이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권위권님이 말씀해 주시는 학교 단위 책임제경영, 거기에 적절하게서 교육감 권한이 이양돼야 되겠다. 그렇게 될 적에는 이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보충질의.....

● 위원 권혁풍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하신다는 말씀, 여기서 뭐 단정적으로 어떤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속 합리적인 방향으로 연구하셔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초등교육국장 소관 더 보충질의 없으시

죠!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그 다음 중등국장님.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중등교육국장 박준용입니다.

먼저 이재희 교육위원님께서 1번으로 질문하신 급식학교 쌀 소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 재고 쌀을 소비해야 하는지, 지시가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미를 소비하라는 공문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정부미는 50% 절감을 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93년도 생산된 통일쌀을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단적으로 '93년도 통일미를 사용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재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김광수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을



하신 학교 과학관 활용실태가 설치된 학교의 과학실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설치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면에 있어서 설치된 학교의 활용 횟수가 타교의 활용 횟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 과학실에서 할 수 있는 실험실습은 자체 학교에서 실험실습을 하고, 기자재가 매우 고가인 또는 첨단적이고 정밀성있는 그런 기구를 학교 과학관에 비치해 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그런 기자재를 실험실습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시·군에 설치돼 있는 학교 과학관을 이용함으로써 인해서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시·군 중심의 학교 과학관을 이용하는 빈도 횟수는 적게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의 센타 구실은 교원의 과학 및 컴퓨터 연수라든가, 과학영재교육이나, 또는 과학과 교육연구회, 또는 부모들의 생활과학실습, 또는 각종 관계의 과학행사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지역 과학 교육의 센타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계속 활용의 극대화과 성과 거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병해위원님께서 제4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보충질문에 대하여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은 상태로 저희들이 서면제출을 한 사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첫째,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면 답변에서도 올렸습니다마는 충북교육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또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연찬회를 실시를 하고 또 교육발전토론회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많은 세계화·국제화 교육을 대비하는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성적통지표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관내에 공문을 보내서 새로운 양식의 통지표를 고안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도 공모를 하고 있고, 또 600여 교원들에게 교육연구 논문을 공모를 해서 세계화·국제화에 부응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세계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의 분야는 수십만 가지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영역별, 각 종류, 여기에 걸쳐서 우리의 선생님들이 각자가 맡고있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또 세계화·국제화에 대처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바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교

[제50회-제3차]

육을 성실히 하고 있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세계화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는 교재교구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6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는 시점에서 다시 교구에 대한 기준령을 교육부에서 마련을 하겠습니까만, 저희들은 우선 교구기준령 자체에 대해서 존재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보고로 인해서 각급 학교가 활용빈도 순에 의해서 확보의 필요성보다도 확보율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고 급급을 해서 활용빈도가 약하고 프로테이지만 올리는 그러한 교재교구를 확보하는 폐단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학급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빈도가 보다 많은 것부터 첨단적이고 양질의 교구를 구입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에는 엄청난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각급 학교에 도급경비를 가지고 학교장의 책임하에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활용빈도가 높은 것은 구입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재교구 확보에 주안점을 두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세계화 추진을 강구하기 위한 선진국 자료를 습득하고 현지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나 공보처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각종 간행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북교육소식을 월간으로 발행하던 것을 주간으로 발간횟수를 늘여서 일선에 새로운 정보제공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까마는, 외국어 현지 연수를 금년에 52명,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 현지 국외연수도 우리 자체적으로 79명에 달하고 중등이 그렇고 초등이 60여명 됩니다.

또 일본 열린교육 시찰을 13명이 며칠 전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 우리 청내에서도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어학연수를 매일 오후에 한시간씩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그러한 선진화된 정보자료를 제공을 하는가 하며는, 또 직접적으로 현지에가서 세계의 모습을 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학교간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습 지진아 구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냐 하는 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습지진아, 그리고 학습부진아, 이거를 통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개념을 공

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운영을 하고 특수교육의 대상자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투입을 하고 또 일반학교에 학력부진아를 위해서는 개별 지도를 강화하고 국민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초학력 미달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을 해서 예년에 볼 수 없을 만큼 '95학년도에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현저히 격감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경우에 있어서는 보충지도와 또는 과외학습을 열외하도록 하고 학력수준별, 교과별 지도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 자료개발을 위해서 600여명의 현장 연구교사를 위촉을 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정책으로는 순환근무제, 농촌지역 근무자에 대한 우대가산점 부여, 또는 교장의 교사임용제청 등으로 인해서 학력을 격차 해소하는 데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학생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영어, 수학, 과학, 또 금년에 논술, 이런 과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내 학력경시대회를 개최를 해서 우수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시상을 하고 있으며, 또 각급 학교에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서예나, 컴퓨터, 체육, 웅변, 문

학 등 다방면에 걸쳐서 특수재능아를 선발교육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종합학습 발표제를 통해서 자기 표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의 장점을 발굴해 내고, 또 서로의 경쟁을, 또 다른 학생이 잘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일으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학생들은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생활지도에 희생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교사의 의식개혁에 어떤 방안을 강구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젊을 때, 봉사하고 희생한 그런 정도는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무한 봉사를 많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욕심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사들은 정과수업, 보충수업, 자율학습지도, 공문서 처리 등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생활지도에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지도에 임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문제가 있는 학생은 특별지도 계획에 있어서 교사와 결연을 맺고 또 개인카드를 작성해서 누가기록을 해가면서 또 가정과 연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소수 학생들의 우발적인 행동변화로 인해서 사고를 저지르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만, 마 성장하는 너 그렇게 생각하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애들은 싸워야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대책으로는 담임교사 중심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 학급에 대해서 전적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학생의 동태를 잘 파악을 하고 사랑과 온정으로 늘 대화하고 어려움이 없느냐는 그런 대화의 장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사가 상담역할을 하도록 하고 조회나 종례시간에 학생들 선도를 위해서 또는 장래의 꿈을 키우는 그러한 훈화지도를 많이 이행을 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부모나 지역인사나 또 경찰과 합동을 해서 수시로 생활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적하신 것은 경찰의 의지하는 정도가 너무 높다. 마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경찰이 또 잘 협조를 해주어서 저희들도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교육 자문협의회 임원들을 위원들을 또 활용을 하고 또 이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의 선도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 수시로 직원연수나 동학년 협의회나, 교과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수를 실시를 하고 항상 선생님이 존경을 받는 가운데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면을 강조를 해서 선생님들의 무한한 그러한 생활지도의 봉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선생님, 또는 우리 학교의 교육만으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생활지도는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잘 융합함으로 인해서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세계 속에 무한 경쟁시대에 세계적인 선수육성 방안은 무엇이나, 또 중도 탈락자가 없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 특기자가 중도탈락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서부터 소질과 적성에 맞는 종목과 학생을 선수를 발굴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종목별 국·중·고 별로 계열화 원칙을 정하고 연계 진학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순회코치 정원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면에서 국민학교 선수를 더욱 잘 적성에 맞는 그러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세계적인 선수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경기 경험과 전국대회에 입상 실적을 가진 체육 특기교사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종목 육성에 맞는 그러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더욱 이와 같은 방법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도 출신 국가대표들을 초청을 하고 일부 종목에서 도 대표 선수들을 초청을 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척에 이영선 선수, 레슬링에 이태호 선수, 수영에 지상준 선수라든가 배드민턴에 이광진, 또는 카누에 박창규, 이와 같은 선수를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다수의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를 초빙을 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강구해서 경기력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충북 고등학교를 통해서 국가대표선수와 한국체육대학의 종목별 선수 훈련 방법에 관한 프로그램을 입수를 해서 도내 중·고등학교 지도자 연수를 실시하고 지정종목 육성교에 보급, 적용해서 도내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방법을 혁신해 나갈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장의 관심을 또 지원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전국 우수팀과 교환경기를 한다든가 국제간 초청경기의 참여등을 통해서 경기력 향상방안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예를 보며는, 충주고등학교의 테니스 선수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주대회에 참가를 했고, 아나 유니아대회에 참가를 했고, 충북상고의 테니스선수가 '95년 우수컵 대회에 테니스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양백여상 배구선수들이 아시아 여자배구대회에 참가를 했고, 제천여고의 배구선수가 역시 아시아 여자배구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청석고등학교의 유도선수도 일본의 유도협회의 초청경기를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박병해위원님에 질문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권혁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을 하신 능력별 반편성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날,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중등장학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계의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교현장이 달라져야 한다하고 강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권위원님은 능력

은 능력별이라고 했지만, 이제 교육부에서는 그 능력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수준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어가.

그 수준별 과정, 그 과정은 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보통과정, 또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러한 3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수준별 과정을 편성을 해서 먼저 교과별 협의회를 거친 뒤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서 또 학부모와 학생들간의 공고를 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러한 허용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장은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직의 의견을 참고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한 뒤에 민원의 야기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이 수준별 과정 운영을 하는 방안을 학교장에게 지시를 하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 운영형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편성형태는 지금 말씀드린 3단계나 2단계 과정으로 하고 대상학과는 우선 처음이니까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우선 이런 과목에서 실시를 해보는 걸로 하고 편성 주기는 분기별이나, 학기별, 뭐 이렇게 또는 학년별로 재편성하는 방안, 또는 대상학년은 전 학년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학년을 하든지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되도록.

그 다음에 운영형태는 담임교사가 교과담임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이 이동수업

을 하거나, 이와 같은 방법.

그런 가운데에서 교재는 교과서를 재 구성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개요를 말씀드렸고, 본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수업 시간에 교과수준별 반편성을 운영하는 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교원대학교 부속고등학교가 1,2학년 376명을 학생이동식으로 영어와 수학, 두개 교과에 걸쳐서 기본, 보통, 그리고 심화과정 3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학교에서는 보충수업 시간에 적이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충대 부속고등학교에서는 특히 보충수업 시간에 2단계 편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우선 교사와 교실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교과수준에 따른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고, 또 현실을 탈피하기 어려운 입시위주의 심화반 중심의 지도가 안되도록 지원반과 보충반에 대한 특별지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우울감이나 열등감을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고 학습지도 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방법이 연구되어야 되고 이동시 소란이라든가, 좌석이라든가, 또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절도같은 거, 이런거 도벽, 이런 것도 생활지도상에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반발,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95학년도 1학기에는 사실상 중간에 4월에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즉각 재편성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책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교장들은 면밀히 조사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어서 2학기에는, 앞으로는 다수의 학교에서, 이런 모습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학생 성폭행 범죄 실태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현대사회의 지나친 개방과 성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 범람 및 여성들의 과다한 노출은 사춘기 청소년들의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동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의 난폭성으로 우범지역에 교외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는 우범지역을 지정을 해서 특별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도의 성폭행 금년도 사건은 한건에 두 학생이 연루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30대의 성인에 의해서 사주

라고 그럴까, 먼저 시키는 그런 과정, 이런 데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학교별 성교육 연간 교육계획을 각 관련교과와 특별활동 또는 학교행사 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윤리, 또는 크게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도 훈화를 많이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참을성, 인내성이 없습니다.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면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자제, 그리고 자율성을 즉 자기 스스로를 자제하는 그러한 덕목함양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가정교육을 부활시키고 학부모가 더욱 관심을 갖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교육 관련 교재 VTR이나 그 외의 교재를 개발, 보급을 해서 지도를 하고 각종 매스컴에 오도된 성문화 보도 및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하는 선정적인 성관련 보도 자료를 게재, 또는 방영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억제하지 않으면 안될 걸로 믿고 이런 것들은 수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궤도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지식을 바로잡아 주고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학생 성폭행 범죄를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질문하신 고등학교 입학 전형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전국에 유일하게 수학능력시험에 의해서 고등학교 입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고력이나 창의력이나 응용력이나 고등정신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의 학력실태로 보서는 학교간의 학력차가 다소 있기 때문에 내신성적만으로는 그 입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것을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려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개혁 발표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발표와 동시에 평준화 해제가 되고 고입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님께 위임을 한다면, 이 보도는 했습니다만 학교장에게는 학생선발권을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9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시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되는 사항으로서는 중학교 체육교과 내신성적 반영이 변경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체력검사에 의해서 체육교과를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내용은 약 96%의 학생이 최고점인 20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실시하지 않는 결로 정책을 정했습니다.

교육감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96학년도부터는 체력장 제도를 우리도 폐지하고 중학교 체육과 평으로 나온 그 성적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수·우·미·양·가에서 수를 20점, 밑으로 1점씩 체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체육교과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96학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어에 있어서는 종전까지는 다섯 문항만 듣기평가 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만 '96학년도에는 8개 문항으로 확대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성지도 평가 및 반영방안은 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인성지도에 대한 평가결과의 반영계획은 없습니다.

세번째, 내신반영안에 있어서는 추천입학제에 있어서 농·공 계열학교에 있어서는 3학년 2학기까지 중간고사 본 결과를, 그 성적을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 선발고사제 학교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체육교과 성적을 교과 내신성적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교사 전보상 교장의 인



사제청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현황으로서는 총 21개 교과에 제청건수가 234분이고 결과 전보발령을 해 드린 선생님 수는 177명을 발령을 해서 75.7%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4.3%는 왜 안됐느냐, 이게 문제점이라며는 미발령 사유가 본 문제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표를 한 것은 인사관리규정내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시·군간에 전보의 점수에 범위에 들어온 분에 한해서 제청을 받아 들이는 그런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순위 미달자가 54명이나 있습니다.

또 내신폭이 국립전출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100%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 경영 시책에 많은 기여를 하는 제도로 대단히 저희들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인사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오랜 시간 답변하셨는데 보충질의,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박병해위원님 있으십니까?

● 위원 박병해

예, 조금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씩 이렇게 지켜주시죠.

● 위원 박병해

소상하게 여러 부분에 걸쳐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모든 질문내용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직접 배우는 학생들한테 그 학력, 인간성, 이런 문제로 학부형들하고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가장 난중요하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려는 교육청에서도 교사들의 움직임, 교사들의 어떤 관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어떤 폐쇄된 생각, 뭐 이런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신중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대한 질문은 유독 지나 권혁풍위원이나 이렇게 가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질문을 했을 때에 답변내용이 판 거에 비하여 딱 미흡한 이런 생각을 항상 지울수가 없어요. 요번에 질문한 내용도 지금과같이 말씀을 좀 더 깊게해서 말씀을 해줬었다라면 보충질문을 안해도 되는지 모르죠. 이런 답변을 좀더 심도있게 솔직하게 우리가 털어놓고 하는 이런 답변, 질문, 이렇게 됐으면, 이래 생각을 하고 또한 그동안에 여러 우리 교사들 여러분들하고 다방에서 만나서도 그런 얘기, 앉아서 만나서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 “선생님들은 지금 또는 그 학교에서 무한경쟁시대에 선생님

은 지금 뭘 어떻게 할려고 생각을 합니까?”  
“학교에서 뭘 어떻게 그런데 대한 태동이 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지금 아무것도 안합니다.” “뭘 어떻  
게 하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일  
률적으로 그런 대답이에요. 그렇다고하며는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교사들  
까지는 그런게 하나도 침투가 안됐거나 뭐가  
얘기가 들어봐도 딱 닫아놓고 너는 너고, 나  
는 나고, 이런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우려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교육청에서는 교사  
들의 그러한 폐쇄적인 이거를 활짝 열어주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질문하  
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세계화, 뭐 경쟁 나중  
에 한국을 주도하는 어찌고 뭐 거창한 얘기  
는 많이해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  
았을 때 정부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그  
건 뭐 만날 공표에 지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만다는 그런 생각에서 구지 여러가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요런거를 생각을 하시고서.....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지금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  
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대  
화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하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 청에서는 각종  
시책을 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지금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박위원님께서 하셨  
는데 사실 관심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늘 저희들 국·과장 회의때도 교육감님께서  
말씀이 계시는데 교장역임하실때 뭔가 얘기  
를 해도 선생님들은 뭐 자기가 급한거, 판전  
을 보느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안듣는 이러한  
사례가 참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하지못하게 강력하게 회의때에는 주의  
집중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늘  
말씀을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만 거기에 대해  
서 적극성을 띠고 있는 그런 경향이 대단히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선  
각자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세계화에 자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그러한 모  
습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김용복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 **위원 김응복**

교육위원 신분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같고 제 입장에서든 당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어떻게 된 놈의 세상인지 요즘은 할아버지 말도 안듣고 노인 말은 물론이고 애비 말도 안듣습니다.

오직 듣고, 가장 보통교육을 하는 초·중·고학생의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는 누구냐, 젊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마마보이라는 게 있어요. 마마보이.

마마보이라는 얘기가 아주 유행입니다.

이 마마보이 양성을 좀 막아야겠어요.

일전에 대학교수가 참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그 사람도 마마보이의 일종의 종류랍니다.

따라서 이 장학지도에 집행하는 데에 항상 제가 또 살아가는데도 그래요. 맥을 짚을 줄 알아야겠어요. 맥을.

팔이 아프다고 해서 그냥 전신을 만져봤자 뭐해요, 맥이 있어요 맥이. 맥을 꼭 짚어야 하는데 충북의 특색사업으로 집중사업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한가지 있어서 요번 기회 아니면 제가 제 평생에는 말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부탁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는 뭘로 보아도 제 생각에선 마마보이 좀 만들지 말자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지금 요즘에 제일 영향력이 있는게 텔레비요, 텔레비. 텔레비전.

이거는 어떻게 된게 누가 얘기하고 지 애비가 내가 교장을 내가 경력자고 내가 은사로 있었던 걸 집에서 얘기하면 안들어요. 여자들 안들어요. 텔레비에 나와서 봤다 뭐 좋다하면 지렁이 아니라 더한 것도 막 환장들하고 덤비는 세상여, 그러니 어떠한 매체를 이용한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마마보이를 양산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냐,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우리 도내에 지금 장학진은 물론이려니와 선생님들 해서 똑똑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울릴수 있는 참말로 불을 댕길수 있는 이런 실력가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움직인다는 거는 지가 불타지 않고는 상대방에 불을 못지르는 겁니다.

나 항상 선생님들 항상 선생님들 얘기하고 강의하거나 이랬을 때에 상대방을 움직이고 사뭇 움직인다는 것은 자기자신이 신념에 차야하고 자기가 활활 타야하는 존재 아니면 안되는겨.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이들 눈치가 제일 정확하고 빠르다는 겁니다.

건성으로 어른들 애들 달랜다고 했다고 해서 할아버지 손자 환심살려고 해봐요. 건성가지고 하나 안 통해요. 대번 알아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교육한다는 것에는, 따라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이 요즘에 어떻게 되

는 고 하니 하여간 결과, 속성주의, 빨리 결과 봐서 빨리 어떻게 배불리 맛있게 따먹는 거, 따먹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아주 쉬운 거요. 공부는 뭐냐,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거, 우리 일선 학교 선생님들 얘기 안들어요. 내가 젊은 사람 얹혀놓고서 애들은 뭐냐 교육은, 교육이라는 건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거다. 이래도 이 참 기가 찬 얘기죠.

● 의장 김영세

저, 김위원님, 김위원님.

● 위원 김응복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참말로 집중적으로 요원화 해서, 요원화해서, 그 결국은 어머니 교육 좀 아주 집중적으로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원, 집중적으로 요원을 양성해서, 그런다고 일선 학교 전부한테 그런 공문 내려서 이래라 한다고 될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봐서 이 사람이면 참말로, 그래서 요원을 양성화 해서, 양성을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젊은 어머니들만 상대를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젊은 어머니들만 상대해서 아이들 마마 보이 되지 않도록 그 방법이 뭐 있겠나 한가지만 그냥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고맙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저희들이 어머니 교육을 계획을 하고 이미 했습니다.

작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응복

미안합니다.

● 의장 김영세

저, 우리 김위원님 의미심장한 말씀하셨는데 이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보충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본 질문은 기회는,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본 질문 하신 중에서 답변에 대한 질문만 하세요.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이재희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이재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간단히 보충질문 보다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지금 급식이 한 80% 가까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93년도 통일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참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며는 어떤 교장선생님의 회고담을 들으니까, 지금 제천 근무하는 교장선생님 아니고 정부미 가지고 밥을 하니까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찹쌀을 사다가 찹쌀을 섞어서 밥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앞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보건계 담당 인사들은 일선에 나가면 쌀 구입 농협에서 쌀 구입한 영수증만 보며는 몇 년도 쌀, 무슨 쌀을 산게 나오니까, 최소한도 '94년도 쌀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지시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며는 이게 그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은 학생들이 하루 세끼 중에 가장 쌀을 먹는 게 학교에서 먹는 급식이라고 그러합니다.

아침, 저녁은 집에서 양이 적고 그런데 지금 금년도 U·R 쌀개방때문에 금년도부터 외국 쌀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는 캘리포니아 쌀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미질이 상당히 좋다 이거여.

그러면 학교급식에서 많이 먹던 이 아주 묵은 쌀 먹던 우리나라 미질하고 어찌다 외국에서 쌀, 밥을 먹었을 때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선호도, 이거는 국민정신에 관한 문제다 이거여.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주 감사나 지시에 아주 '93년도 미곡은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먹이지 말자는 걸 강력히 실시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이재희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쌀을 먹여라, 먹여라, 이런 지시는 한 적이 없고 학교운영은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급식은 항차

얘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학교장 소신에 의해서 정부미를 먹이든, 아니면 일반미를 먹이든 상관이 없는데 교장 선생님 자신이 그 개탄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이재희**

물론 학교장의 재량인데 지금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않지만 사실은 공식적으로 '93년도 정부미 학교 교장이 구입하거나 맡거나 하나 하등의 하자가 없어요. 하지만 미질은 곳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쌀 맛이 다르다 이거여.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사다가 먹어보니까 도저히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찹쌀을 사다가 섞었다 이겁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그렇게 한번쯤 해봤던 모양이죠.

● **위원 이재희**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권장사항으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아주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 중등국장님 답변 오래해서 아주 곤경을 치르고 있는데 보충질의 하실 분 꼭 10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권혁풍위원님 질문하세요.

● 위원 권혁풍

제가 보충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능력별 반편성이라는 걸 안쓰고 수준별로 쓴다는 거 참 아주 적당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말을 쓰면서 학생을 능력별로 참 등급화 시킨다는 거는 너무나 잔인한 방법이다 그래 했는데, 수준이라는 거는 변하니깐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2학기에 가서는 다수 학교가 아마 그러한 수준별 반편성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교육적으로 조금도 별로 민원의 대상이 된다 그런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학생들을 우려하는 길 이 아닌가, 전인교육차원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학부형들이 바른 이해를 한다며는 자녀를 위해서는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 위원 권혁풍

예,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성폭행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석에서 어떤 법원의 요원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듣자니까 그게 아니고 지난해 한건이 발생했다. 그것도 학생이 아니라 30대 성인이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안심이 됩니다마는.....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성인이 주도가 되어서 4명이 거기에, 말하자면 일반인하고 관련이 됐습니다.

● 위원 권혁풍

그런데 그 우리가 미쳐 몰라서 그런거는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게 되는데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요. 뭘 보고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이걸 거론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드린건데 그러면 자기들이 시간을 주며는 나와서 거기에 대한 교육까지 시켜보겠다는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까지 보여요. 그래서.....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그 말씀을 제가 안드렸는데요. 우리 실무자,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나 법관을 1일교사로 초빙을 하는 계획을 세워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들이 권위원님 앞에서는 그런 말씀이 게셨는지 모르지만 자기들 할 일도 너무 중첩돼 있는데,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래서 문안에 안넣었습니다.

● 위원 권혁풍

그래 만약에 그분들이 해주신다며는 1일교사도 할 수가 있겠죠.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예

● 위원 권혁풍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예

● 위원 권혁풍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어떻길래 그런가 하고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한번 질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대통령도 나와 1일교사도 하고 하는 뭐 법관이라고 못할 거 없습니다.

법관도 우리 지역사회 인사로서 얼마든지 자원인사로 초빙해서 1일교사로다 활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입개선안에 대해서 우리는 전국에 유일한 수능시험 방식을 이용한 고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전국 최초로 우리가 수능시험제도가 도입됐고 그걸 지금까지도 계속 활용해서 고입에 참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내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와서 학생들을 결국은 다 우리 교육감 산하의 학교인데 수능대비 수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도. 수능에 대비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평가도 역시 수능식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그 수업 자체가 수능대비수업 방식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권혁풍

없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평가에 방법이 수능시험이죠.

● 위원 권혁풍

글쎄 말씀이요. 학교에서 평소에 평가하는 방법이 수능평가 아니겠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예

● 위원 권혁풍

그러면 수능평가 결과가 내신이 되는 건데 그 내신가지고도 별도로 고입시험을 안보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논리적으로 볼때.

평소에는 수능수업을 안하면서, 수능평가를 안하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 수능평가를 한다면.....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평소에 수능시험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권혁풍

그러면 그 내신가지고 충분히 고입 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그러나 저희가 전제한 것은 우리 도내 실정은 학교간의 학력차가 다소 내신성적만으로 고입 전형은 하기에는 불합리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권혁풍

학교차는 뭐 우리뿐 아니라 다 있습니다. 서울도 있고.....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그러나 서울같은 데에는 많은 차가 없죠, 저희들처럼.

● **위원 권혁풍**

아 그래서 정도 문제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수능의 평소 평가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면 구태여 그걸 중복해서 아이들한테 부담을 더 줄 필요가 있느냐, 최대한 평소에 수능평가 방법을 활용한다면 그대로 내신을 해서 하면 학생들한테 시험의 압박으로부터 학생을 구출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건의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봅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권혁풍**

예.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선의의 경쟁이고 수준별 반편성을 하는 것도 경쟁입니다.

또 세계화에 주역을 양성할라며는 역시 능력별, 아니 수준별 반편성을 해야되죠. 그런데 내신성적만으로 한다면 하급학교에서는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교장선생님께 결례의 말씀이 될런지 모르지만 다소 소홀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때문에 역시 우리 충북에서는 그래도 전국에 수재를 키우고 세계의 주역을 배출할라며는 계속해서 입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 나름으로는, 그래서 공석에서 개인 나름으로라는 말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권혁풍**

이제 타도에서 계속해서 내신성적을 가지고 하고 무시험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인재양성에 더 도움이 되느냐, 보탬이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결과를 측정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험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그 입시위주교육, 이건 공통된 그런 교육의 폐해로 보고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 **의장 김영세**

저 교육감님, 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 **교육감 정인영**

아니, 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 **위원 권혁풍**

제가 계속할까요.

● **의장 김영세**

예 하세요.

● **위원 권혁풍**

그래서 저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타도도 물론 강원도라든가 무슨 다른 몇 도를 보고 있는데 내신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중학교의 교육을 믿고 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문턱하나 차이인데 평소에 하고 있는 그대로, 또 여기서 탈락자가 굉장히



많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뭐 2대1, 3대1이 돼가지고 참 변별력이 뚜렷이 있다. 떨어지는 학생들 가려내야 되겠다. 이러한 의지가 있다. 현실이 그렇다 하며는 해야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그 학생이 그 학교로 다 가고 충북의 중학교와 충북고등학교가 다 갑니다.

뭐 거의 1대1 수준인데, 여기에서 또다시 중압감을 주느냐, 가려내는 게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건의를 드려보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집행청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타시도가 하는 것은 참고하시고, 하시되, 지금 또 답변이 하나가 인성지도 방법은 전혀 없다 하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

인성지도는.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인성지도결과를 입시에 반영하는, 내신반영하는.....

● **위원 권혁풍**

글쎄, 그런 방안이 없다.

그래 이게 문제라고 전 봅니다.

지금 아까도 김용복교육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가 참 아버지를 죽이는 이게 처음부터 인성지도가 처음부터 안되 그런데, 참 이러한 황폐한 교육제도하에서 우리가 학생들의 뭐 효행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우리 주변에는 꽃동네 같은데 충분히 활용을 해서 뭔가 인성지도 방안이 나올만도 한데 그걸

아직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 연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더 좀.....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내신성적의 반영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연구되게 될겁니다.

● **의장 김영세**

저, 권위원님 그것만 마치시고요, 답변을 듣고 또 하시죠.

● **위원 권혁풍**

예, 그러죠.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학교교육은 제가 뭐,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평생교육의 10%밖에 안된다고 그러합니다.

● **위원 권혁풍**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가.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물론 기초가 중요하죠.

그러나 평생교육 차원에서 볼때는 학교교육은 10%밖에 불과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계속적으로 가정교육, 사회교육, 자기 연찬 이런 등등이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운 생각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교육을 몰아부치는데 입시위주의 교육을 최대로 지금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잘못된거다.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면서도 오늘날 우리가 국가 수준이 이만큼 발전된 거는 우리 교육의 결과가 아

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말할 때, 지금까지의 교육은 입시교육이 되었던, 전인교육이 되었던, 어떤 교육이 되었던 교육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 한국을 만불의 GNP에 도달하게 하고 국제적으로 뭐 11, 2위를 놓는 이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시킨 것은 교육의 힘이 아니냐, 이렇게 볼때 저는 우리의 교육이 세계화에 어느정도 접근된 거 아니냐, 다만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재고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재충전하는 이러한 면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 교육을 몰아부치는 거는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교육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굴지의 인물들이 많이 배출돼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도 그렇고, 뭐 정치나 각계 뭐 우리 김창준씨같은 양반은 미국서도 의회의원을 지내지 않습니까? 또 뭐 문화, 음악, 이런 데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때에 우리 교육이 그렇게 가꾸어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거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권혁풍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때 국장님께서서는 현재 입시교육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있다.

계속 살려나가기겠다 그런.....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여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 위원 권혁풍

그런 의도시겠죠.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논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면에서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잘못된 게 많이 있다.

● 위원 권혁풍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까요.

● 의장 김영세

어떻게 질문이 또 있습니까?

● 위원 권혁풍

예 조금 더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 위원 권혁풍

예

● 의장 김영세

시간이 지금 상당히 초과가 됐어요.

● 위원 권혁풍

하여간 중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내릴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좀더 연구를 하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인사제청권에 관해서 초등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초등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 위원 권혁풍

예, 제가 묻은 것은 중·고등학교는 그렇게 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초등까지 확대가 좀 돼서 그게 좀 활용이 됐으면.....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거기에 대해서 자꾸 중등팀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 위원 권혁풍

아까 중등국장님께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감 앉은 자리에서 발언)

● 교육감 정인영

고등학교는 지난 3월 1일자로부터 적용을 해서 실시를 했고, 국민학교부터 중학교는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을 해서 다음 9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법의 공지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 위원 권혁풍

지금은 안되지만 9월달부터

● 교육감 정인영

현재는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 위원 권혁풍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9월달부터 이렇게 해서 융통성있게 된다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더이상 질문, 보충질의 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예, 중등국장님 아주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고맙습니다. 우리 관리국장은 간단하게 답이 나오겠지요.

(관리국장 “예”하고 말함)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김광수위원 “답변을 해봐야지 간단한지 길은지 알지요.”하고 말함)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이재희 교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버스 차고 건축 계획과 현재 학교 울타리 공사하는 것을 차후 신속으로 전향할 수는 없느냐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버스는 관용차량관리규정에 의하여 최대 운행 기준년한이 25인승 이하는 6년, 35인승 이상은 8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차량을 교체해야 함으로 차고를 건축하는 것이 그렇게 긴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자체에서 차고를 신속한 현황을 보면 도내에 여든개 학교에서 112대의 학교버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57대의 버스는 차고가 불력이나 조립식, 또는 천막등으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55대만은 아직 차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

입니다.

다음에 각종 시설사업은 학교장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울타리공사보다 차고신축이 우선이나 하는 문제는 저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보다는 당해 학교장의 판단이 앞장서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이재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학교 관리 변경내용과 주민이 요청할 경우 무상임대도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교학교는 보존을 원칙으로 해서 관리한다는 관리지침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폐교재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세분해서 관리하도록 최근에 추가 지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주민복지사업에 사용코자하는 경우는 우선 조치토록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상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에 질의하신 농촌지역에 미활용으로 방치된 사택에 대해서 활용, 또는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택은 총 827동이며 이 가운데 158동이 미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사택 중에서 입주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현대식 시설로 보수해서 사용토록 할 것이며 보수하여도 사용 불가능한 노후 사택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삼수국민학교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진천 교육발전을 위해서 진천 읍내 국민학교 배치의 균형화 및 학구관리의 적정화를 기함으로써 학생편의를 도모하고 상산 국민학교에 비해서 상반적인 열악한 삼수국민학교가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진천삼수국민학교 이전계획을 '93년 8월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27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진천교육청에서는 삼수국민학교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조체제를 구성하는 한편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간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한필지 약 2,180여평에 대한 가격차를 해결하지 못해서 '95년 현재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진천삼수국민학교 이전계획의 백지화 및 이전추진위원회 해체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까지 진천교육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공식적 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신문보도 후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았더니 삼수국민학교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5

월 4일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동안의 추진상황, 분위기,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이상 집행기관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추진위원들이 해체할 것을 논의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전계획을 백지화한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이러한 중요한 교육사업을 협조기구인 추진위원회에서 백지화하거나 취소시킬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천교육청에서는 삼수국민학교 이전계획은 지역의 중요한 현안으로 진천 교육 발전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해결방안을 연구, 검토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이전계획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최선을 기울이겠으며 만약 계획된 부지내에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부득이 이전계획이 변경돼야 할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저희들이 의안으로 상정을 해서 심의, 의결에 받게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침묵)

예 아주 대답을 명료하게 해서 보충질의 없으신 모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폐회)

[제50회-제3차]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6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김근학,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별첨1)

# 議 事 日 程(案)

第 50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 ( 臨 時 會 )

1995.5.22-5.24(3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5.5.22(월) 14:00 15:00	※ 교육위원 협의회(교육위원실) ※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차 본회의 산회】 ※ 학교 방문(정주혜화학교)	회 기 5.22-5.24. (3일간)
5. 23(화) 11:00	【제2차 본회의 개의】 1. 교육행정예 관한 질문 【제2차 본회의 산회】 ※ 학교 방문(정주혜원학교)	
5. 24(수) 11:00	【제3차 본회의 개의】 1. 교육행정예 관한 질문(계속) 2. 기타안건 처리 【제3차 본회의 산회】 ※ 폐회	

